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신념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시와 K도에 거주하는 어머니 219명을 대상으로 양육 신념과 훈육방식을 설문지 조사하였다. 양육신념은 Okagaki와 Sternberg(1993)가 개발한 부모 양육 신념 설문지를 사용했고, 훈육방식은 Calzada와 Eyberg(2002)의 부모 훈육방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 분석, 중다회귀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는 양육신념 중 문제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훈육방식은 논리적 설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신념 중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은 훈육방식 중 논리적 설명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신념 중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은 훈육방식 중 논리적 설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방임과 강압적 체벌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아의 어머니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 양육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훈육방식으로 논리적 설명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어머니의 바람직한 훈육방식의 토대가 되는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 양육 신념에 관한 부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주제어: 어머니
양육신념
훈육방식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비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1)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제1저자
- 2)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교신저자 (th5248@naver.com)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자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others' Parenting Belief on The Types of Discipline Methods in Children

김 미 숙¹⁾ 신 소 희²⁾
Misuk Kim So Hee Shin

I. 서론

최근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 내이며, 대부분의 동학대가 부모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김정은, 최진령, 2018; 이재경, 박명숙, 2014; 이정윤, 장미경, 2009), 양육지식의 부족(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부모의 양육 태도(김혜영, 장화정, 2002; 표갑수, 1993)등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체벌 등 훈육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훈육은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자녀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양육행위이다(조은영, 2009). 부모가 훈육을 잘 하면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자녀를 엄격하게 대하고 통제하는 부정적인 훈육방식은 신체·정서·성 학대와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발생뿐만 아니라(오정옥, 이경원, 2015; 최은영, 이진화, 김승진, 2015; Afifi, Mota, Sareen, & MacMilan, 2017; McCoy & Keen, 2013; Olson et al., 201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권소형, 유연옥, 2011; 정혜린, 이순형, 2016; 최영미, 이희영, 2017). 이처럼 부모가 잘못된 방식으로 훈육을 하게 되면 아동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부모 양육 행동으로서의 훈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훈육은 “discipline”의 의미로 “제자(disciple)가 자발적으로 지도자(leader)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도자를 따르는 과정(박병량, 2001)”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훈육은 학습이론 관점에서 주로 설명되어 왔다. 학교의 학습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는 훈육모델은 다양하나(박병량, 2001), 주로 Freud(1949), Skinner(1976)의 심리 역동적 이론, 행동주의 이론과 함께 Ginott(1972)의 “적합한 의사소통을 통한 훈육, Dreikurs(1957)의

“민주적인 교수와 잘못된 목표 수정을 통한 훈육”, Glasser(1985)의 “강요 없는 욕구충족을 통한 훈육”, Gorden(1970)의 “자기통제 개발을 통한 훈육”, Curwin과 Mendler(1988)의 “존엄성과 희망을 통한 훈육”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들 이론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적, 심리적 문제행동은 교사의 학습관과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고 보고 아동 중심의 훈육방식이 권장되었다.

부모의 훈육방식에 관한 이론은 Schaefer와 Symond의 양육태도 이론을 근간으로 Smetana와 Daddis(2002), Calzada와 Eyberg(2002)가 개념화하였다. Smetana와 Daddis(2002)는 부모의 훈육방식을 지지적 훈육,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지지적 훈육이 긍정적인 발달을 가능하게 하며, 행동적 통제가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지원이나 애정 못지않게 자녀에게 바람직한 행동과 심리의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면에 강압적 개입, 죄책감 유발, 사랑의 철회를 뜻하는 심리적 통제는 공격성, 위축, 과잉행동 등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Daddis와 Smetana(2005), Smetana, Campione-Barr 그리고 Daddis(2004), Smetana와 Daddis(2002), Smetana, Daddis 그리고 Susan(2003)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통제 유형의 연관성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발달의 연관성에 관한 규명에 주력하였다.

Calzada와 Eyberg(2002)는 Baumrind(1971)의 네 가지 부모 양육 태도 즉, 민주적, 허용적, 권위적, 방임적 태도에 기초하여 부모의 훈육 방식을 개념화하였다. 그들은 부모의 훈육을 논리적 설명(애정과 수용, 합리적 이유와 안내, 민주적 참여, 온화함과 느긋함), 방임(훈육을 중간에 철회함, 잘못된 행동에 대한 무시, 자신감의 부족), 강압적 체벌(적대적인 언어사용, 강압적 체벌, 비논리적인 태도와 처벌적 방법, 지배)로 구분하였다.

논리적 설명의 훈육방식은 아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본인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생각이나 능력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아동중심 관점이다. 방임은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거나 물질적인 제공을 철회하고 아동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강압적 훈육은 아니지만 처벌적 훈육방식에 해당된다. 강압

적 체벌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신체적 체벌, 언어적 체벌을 가하는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의미한다(김선미, 2015). 이러한 세 유형의 훈육 방식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강압적으로 체벌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묵인하는 방임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논리적 설명의 훈육방식을 사용할수록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장순상, 김영희, 2017), 도덕성(홍경선, 김영희, 2005)이 발달하며, 문제행동이 적었다고(이진화, 백경순, 2018) 한다.

이처럼 훈육에 관한 연구는 훈육방식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훈육을 양육행동과 동일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훈육이 아동을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일종의 양육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김선미, 2015; 도순희, 2008). 즉, 훈육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치에 따라 나타나는 양육행동 혹은 양육실체라는 것이다(김인지, 이숙현, 2012). 양육행동의 유형은 전통적으로 애정과 통제의 축에서 “허용적 부모”, “권위적 부모”, “무관심한 부모”, “권위주의적 부모”(Baumrind, 1991, 정옥분, 2002 재인용)로 설명되었으며 최근에는 온정, 적극적 참여, 규제, 반응성, 합리적 지도, 친밀성(백승선, 안연경, 광경화, 2017) 등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Calzada와 Eyberg(2002)의 훈육 방식에 관한 정의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규범과 규준을 지도하거나 바람직한 발달과 교육을 위해 안내하는 교육적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이들 이론의 양육행동에 관한 개념적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양육행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양육신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유사할 것이다.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의 연관성을 규명한 조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양육신념은 태도, 가치와는 구분되는 인지적 체계이며,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으로 구성되는 사고의 양식이다. 부모의 양육신념은 “자녀 양육에 관한 전략”(Raghavan, Harkness, & Super, 2010), “교육과 발달에 대한 기대(expectation)”(Ren & Edwards, 2015), “문화적 이론(ethnotheory)”(Edwards, Knoche, Aukrust, Kumru, & Kim, 2006), “자녀교육의 목표 및 가치”등으로도 부른다. 양육신념은 아동발달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Edwards, Gandini, & Giovaninni, 1996; Harkness & Super, 1996; Hess, Kashiwagi,

Azuma, Price, & Dickson, 1980; Okagaki & Sternberg, 1993) 조사되었는데, 부모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유아의 창의성(고선옥, 이봉순, 2006)과 정서조절 능력(최은숙, 2013), 다중지능(주정호, 2014)이 높게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전은영, 2004)과 리더십(최경미, 김혜순, 2010)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양육신념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양육신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의 조기 발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양육 전략을 사용하고(Holloway & Reichhart-Erickson, 1989), 어머니가 아동의 발달에서 사회-정서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직접적인 지도보다 권위적 양육행동을 하였다(Ren & Edwards, 2015). 유아 및 아동을 능동적인 지식구성자로 인식하는 경우,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유아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하며(McGillicuddy-Delisi, 1985; 이희선, 1995 재인용), 능동적 학습 신념을 지닌 부모는 수동적 학습 신념을 지닌 부모에 비해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을 더 하는(김정화, 이영애, 2013)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처럼 자녀의 발달과 양육의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양육신념이 양육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훈육방식의 사용도 양육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특히, 자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많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신념이 훈육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유아기는 주도성과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며(Erikson, 1993), 사회·문화적인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창의성이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Gardner, 1982). 그 반면에 언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는 유아를 미성숙하다고 판단하여 통제하려는 경향(Dahlberg, Moss, & Pence, 2007)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적 성과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훈육방식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 및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부모의 양

육신념 모델을 제안한 Okagaki와 Sternberg(1993)는 양육신념을 독립성 vs 순응성의 두 개의 축으로 설명하였다. 독립성은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능력, 일상적 능력(생활습관)을 말하며, 순응성은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순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성의 문제해결 능력은 부모가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을 지향하는 것이고, 창의적 능력은 책임기, 가상놀이에서 창의력을 향상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일상적 능력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독립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Okagaki와 Sternberg(1993)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는 없으나 그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들은 다소 있다. 어머니가 유아의 발달과 업 달성을 위해 독립성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유아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자녀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존중하며, 유아 발달수준에 적절한 지도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09). 그 반면에 부모가 자녀의 학습이 부모에 의해 주어지는 자극과 강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순응성 양육신념을 가진 경우, 자녀에게 거부적인 양육태도와 행동 및 심리를 통제하는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며(주정호, 2014),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어머니의 의도에 따르도록 하는 양육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김수희, 2008)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독립성과 순응성 양육신념은 훈육방식의 논리적 설명, 방임, 강압적 체벌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일반적인 경향과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어머니가 가진 양육신념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와 K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27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의 원활한 표집을 위해 S시와 K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어머니 278명 중 무응답과 중복응답이 있는 설문지 59부를 제외한 219부의 설문 내용(유효응답률 78.8%)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자녀수는 2명이 106명(48.4%), 1명이 83명(37.9%), 3명 이상이 30명(13.7%)이었다. 나이는 36~40세 94명(42.9%), 41세 이상 72명(32.9%), 31~35세 45명(20.5%), 26~30세 7명(3.2%), 25세 이하 1명(5%)이었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 63명(28.8%), 400~500만원 미만 63명(28.8%), 500만원 이상 60명(27.3%), 200~300만원 미만 23명(10.5%), 200만원 미만 10명(4.6%)이었다.

2. 연구도구

1) 양육신념

본 연구에서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Okagaki와 Sternberg(1993)가 개발한 부모양육신념 설문지를 김경혜(1994)가 번안한 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신념 설문지는 독립성 양육신념의 하위영역인 문제해결 능력(5문항), 창의적 능력(4문항), 일상적 능력(8문항)과 순응성 양육신념인 순응(5문항)의 총 4개 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 수는 22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양육신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양육신념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문제해결 능력 .72, 창의적 능력 .71, 일상적 능력 .84, 순응 .55였고 전체 .89였다. 순응의 신뢰도 계수는 .55로 비교적 낮게 나

타났는데, Okagaki와 Sternberg(1993)의 연구에서 순응의 신뢰도는 .37 ~ .66이었고, Okagaki와 Sternberg(1993)의 도구를 사용한 송승민, 송진숙(2007)의 연구에서도 순응의 신뢰도 계수가 .54로 나타나서 순응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 훈육방식

훈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Calzada와 Eyberg(2002)의 부모 훈육방식척도를 이동희(2004)가 번안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SD는 논리적 설명(6문항), 방입(6문항), 강압적 체벌(10문항)의 3개 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 수는 22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훈육방식을 더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훈육방식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논리적 설명 .84, 방입 .76, 강압적 체벌 .88이었고 전체 .82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S시에 거주하는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5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15분이었으며,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계수가 양육신념은 .74, 훈육방식은 .66으로 나타나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본 조사를 위해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S시와 K도의 어린이집 9곳의 어머니 278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과 중복응답이 있는 설문지 59부를 제외한 219부(78.8%)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양육신념과 훈육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행했다. 셋째, 양육신념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양육신념의 4개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독립변수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값과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일반적인 경향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표 1 참조).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문제해결 능력($M = 4.16, SD = .57$)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창의적 능력($M = 4.11, SD = .63$), 순응($M = 4.06, SD = .49$), 일상적 능력($M = 3.86, SD = .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능력과 함께 순응 양육신념을 거의 동일한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논리적 설명($M = 4.11, SD = .58$)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압적 체벌($M = 2.52, SD = .68$), 방임($M = 2.07, SD =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어머니들이 양육신념에서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훈육방식으로는 논리적 설명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일반적인 경향 ($N = 219$)

변인	하위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M)	표준편차 (SD)	
양육신념	독립성					
	양육신념	문제해결 능력	2.60	5.00	4.16	.57
		창의적 능력	2.25	5.00	4.11	.63
		일상적 능력	2.38	5.00	3.86	.63
	전체	2.41	5.00	4.04	.61	
순응성 양육신념	순응	2.40	5.00	4.06	.49	
	전체	2.45	5.00	4.02	.48	
훈육방식	논리적 설명	2.00	5.00	4.11	.58	
	방임	1.00	3.83	2.07	.61	
	강압적 체벌	1.20	4.50	2.52	.68	
	전체	1.68	4.09	2.83	.42	

2.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 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양육신념과 종속변수인 훈육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2 참조). 양육신념과 훈육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 능력 양육신념은 훈육방식 중 논리적 설명($r = .44,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양육신념은 훈육방식 중, 방임($r = -.37, p < .01$), 강압적 체벌($r = -.34,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창의적 능력 양육신념도 훈육방식 중, 논리적 설명($r = .44,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창의적 능력 양육신념은 훈육방식 중, 방임($r = -.33, p < .01$), 강압적 체벌($r = -.36,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일상적 능력 양육신념은 훈육방식 중, 논리적 설명($r = .31,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적 능력 양육신념은 훈육방식 중, 방임($r = .04, p > .05$), 강압적 체벌($r = -.03, p > .0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순응 양육신념의 경우 훈육방식 중, 논리적 설명($r = .31,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순응 양육신념은 훈육방식 중, 방임($r = -.01, p > .05$), 강압적 체벌($r = .01, p > .0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어머니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훈육방식 중 논리적 설명을 많이 사용하고, 방임과 강압적 체벌은 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 간의 관계 ($N = 219$)

	1	2	3	4	5	6	7
1. 문제해결 능력	-						
2. 창의적 능력	.74**	-					
3. 일상적 능력	.51**	.50**	-				
4. 순응	.57**	.54**	.46**	-			
5. 논리적 설명	.44**	.44**	.31**	.31**	-		
6. 방임	-.37**	-.33**	.04	-.01	-.29**	-	
7. 강압적 체벌	-.34**	-.36**	.03	.01	-.26**	.62**	-

** $p < .01$

3.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신념 하위요인이 훈육방식 하위요인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했다. 그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79 ~ 2.05로 나타났고, VIF값은 10미만(1.47 ~ 2.51)으로 독립변수들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1)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논리적 설명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논리적 설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3 참조), 양육신념 중 문제해결능력($\beta = .21, p < .05$)과 창의적 능력($\beta = .23, p < .05$)이 논리적 설명 훈육방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 중 창의적 능력이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신념 중 일상적 능력과 순응은 훈육방식 중 논리적 설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의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논리적 설명의 훈육 방식을 더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논리적 설명에 미치는 영향 (N = 219)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β	t	VIF	Tolerance	adj R ²	F	DW
논리적 설명	문제해결 능력	.22	.21	2.24*	2.51	.40	.21	15.78***	2.05
	창의적 능력	.22	.23	2.50*	2.38	.42			
	일상적 능력	.08	.08	1.11	1.47	.68			
	순응	.03	.02	.30	1.62	.62			

* $p < .05$, *** $p < .001$

2)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양육신념 중 문제해결능력($\beta = -.46, p < .001$)과 창의적 능력($\beta = -.28, p < .01$)은 방임 훈육방식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쳤다. 양육신념 중 일상적 능력($\beta = .29, p < .001$)과 순응($\beta = .28, p <$

.001)은 방임 훈육방식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훈육방식으로 방임을 덜 사용하며, 일상적 능력과 순응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방임을 더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 (N = 219)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β	t	VIF	Tolerance	adj R ²	F	DW
방임	문제해결 능력	-.50	-.46	-4.99***	2.51	.40	.26	19.92***	1.79
	창의적 능력	-.27	-.28	-3.10**	2.38	.42			
	일상적 능력	.28	.29	4.03***	1.47	.68			
	순응	.34	.28	3.71***	1.62	.62			

** $p < .01$, *** $p < .001$

3)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강압적 체벌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강압적 체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표 5 참조), 양육신념 중 문제해결능력($\beta = -.35, p < .001$)과 창의적 능력($\beta = -.36, p < .001$)은 강압적 체벌 훈육방식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쳤다. 양육신념 중 일상적 능력($\beta = .17, p < .01$)과 순응($\beta = .33, p < .001$)은 강압적 체벌 훈육방식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훈육방식으로 강압적 체벌을 덜 사용하는 반면, 일상적 능력과 순응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강압적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강압적 체벌에 미치는 영향 (N = 219)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β	t	VIF	Tolerance	adj R ²	F	DW
강압적 체벌	문제해결 능력	-.42	-.35	-3.68***	2.51	.40	.23	17.41***	1.84
	창의적 능력	-.40	-.36	-3.95***	2.38	.42			
	일상적 능력	.19	.17	2.40**	1.47	.68			
	순응	.45	.33	4.30***	1.62	.62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고, 양육신념과 훈육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신념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양육신념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능력 양육신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경혜(1994), 송승민과 송진숙(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훈육방식의 경우, 논리적 설명, 강압적 체벌, 방임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선미(2015), 최선녀와 문영경(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훈육방식보다 긍정적 훈육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독립성 양육신념으로서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능력 양육신념을 가지고 논리적 설명을 사용하는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은 두 변인 즉, 양육신념과 훈육방식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추정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변인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에서 이 두 변인의 하위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양육신념과 훈육방식 간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 양육신념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논리적 설명 훈육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방임과 강압적 체벌 훈육방식은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양육신념, 순응 양육신념과 논리적 설명 훈육방식의 상관관계의 경우,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나 그 정도는 아주 낮고, 방임, 강압적 체벌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훈육방식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지향할수록 훈육에서 강압적 체벌이나 무관심과 무시 등의 방임을 하기 보다는 논리적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인과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회귀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양육신념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어머니는 방임, 강압적 체벌과 같은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덜 사용하며, 논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문제해결과 창의성 양육신념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추론능력, 자율성, 문제해결력, 융통성, 유창성, 독립성, 독창성 등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훈육에서도 강압적 체벌이나 방임보다는 논리적 설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양육행동이다. 실제로 유아의 어머니가 양육신념에서 자녀의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유아의 창의적 기술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유아의 행동을 수용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존중하는 양육행동을 하며(김수연, 2009), 부모가 유아의 관점에서 규칙이나 규범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지위 지향적, 인성적 언어통제를 하게 되면, 유아의 창의성(박유은, 이경화, 2013),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 해결력(남현영, 이소은, 2004)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훈육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순응 양육신념은 강압적 체벌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노홍(2015)의 연구에서 부모의 순응신념이 자녀에 대한 체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일상적 능력 양육신념과 순응 양육신념은 방임, 강압적 체벌 훈육방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회귀분석에서 방임과 강압적 체벌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관만은 관계성만을 추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성을 확인하는 회귀분석과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최향숙, 한세영, 2011) 사실을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다.

Okagaki와 Sternberg(1993)의 이론에서 부모의 양육신념은 독립성 양육신념과 순응성 양육신념의 두 개의 축으로 설명되고 있다. 독립성 양육신념은 자녀의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능력, 일상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인데, 이는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아동 중심적 관점의 신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처럼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아동중심의 논리적 설명으로 훈육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일상적 능력에 관한 신념이다. Okagaki와 Sternberg(1993)의 이론에서 일상적 능력에 관한 신념은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스스로 옷을 챙겨 입기',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기.' 등 자조 능력을 기르는 것을 지향하는 신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성을 지향하는 양육신념을 가진 어머니가 방임과 강압적 체벌을 사용하는 것은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이 상치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양육신념에서 자녀의 일상적 능력에 대해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부모가 일상적 능력을 지도할 때 체벌이나 방임 등의 훈육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조 기술을 조기에 습득하게 하고자 하는 지나친 기대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적인 성취와 실제적인 능력을 강조할수록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기보다 지시하고 통제하며(오정현, 2005), 아동의 자율성 발달을 저하시키고, 부모의 방임이 증가되는(안지영, 박성연, 2002)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상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 겪게 되는 생활의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 현상(김인지, 이숙현, 2012)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독립성 양육신념을 추구하지만 현실적 이유 때문에 강압적 체벌이나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육신념과 양육의 실체가 상반되는 현상이며 어머니가 양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양육이론에서 양육신념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정설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신념은 문화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의 불일치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일상적 능력에 관한 신념과 훈육방식 사용의 불일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적 능력에서 독립성은 서구적 개념이다. 그러나 동양의 유교사상이 문화적 관념과 행동에 스며들어 있는 현실에서 부모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칙 및 규범은 부모로부터 전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양육 신념에 관한 문화적 이론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명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모의 부정적인 훈육방식은 자녀의 행동적인 문제가 많을수록, 혹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이며 문제 해결 전략이 미숙할수록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주희, 이양희, 2000).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태도, 양육기술 훈련과 부모 교육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어머니의 양육신념도 훈육방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훈육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머니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이은주, 민하영, 2006) 훈육과 관련된 부모의 신념 변화에 관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 및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훈육을 위한 양육신념에 관한 교육을 한다면 부정적 훈육방식의 사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에 관한 객관성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는 방식(Ren, Knoche, & Edwards, 2016)으로 조사하여 실제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양육신념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의 주관적 양육신념과 훈육 방식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녀의 연령층이 3 ~ 5세로 국한되어 있고 S시와 K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대상자를 표집 하였기 때문에 모든 지역과 연령에 일반화해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0 ~ 2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더 많은 지역의 보육·교육시설에서 대상자를 표집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훈육방식의 인과관계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고선옥, 이봉순(2006). 부모의 창의적 성격특성과 양육 신념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

- 연구, 4(1), 73-88.
- 권소형, 유연옥(2011).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의 관계. **과학논집**, 37, 147-159.
- 김경혜(1994). 자녀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2015). 부와 모 간의 양육태도·훈육방식·유아 문제행동 인식 차이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09).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 행동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313-324.
- 김수희(2008). 만 1세 두 영아의 놀이행동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지, 이숙현(2012). 어머니의 자녀 훈육 경험: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와 대처. **가족과 문화**, 24(2), 1-38.
- 김정은, 최진령(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학대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8(20), 499-515. doi:10.22251/jlcci.2018.18.20.499
- 김정화, 이영애(2013). 부모의 교육신념과 유아권리 실천도 인식 간의 관계. **영유아교육연구**, 16, 39-55.
- 김혜영, 장화정(2002). 아동학대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6(2), 269-286.
- 남현영, 이소은(200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485-496.
- 도순희(2008). 부모의 훈육방식과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정서조절력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병량(2001). **훈육**. 서울: 학지사.
- 박유은, 이경화(201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창의성 간의 관계. *Global Creative Leader*, 3(1), 3-20.
- 백승선, 안연경, 광경화(2017). 감성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7(2), 1-24. doi:10.21213/kjcec.2017.17.2.1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11-1352000-000025-10.
- 송승민, 송진숙(2007). 부모의 양육신념 및 역할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3-7세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 16(5), 933-944.
- 안지영,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1), 53-68.
- 오정옥, 이경원(2015). 미취학아동 부모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훈육과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2), 247-271. doi:10.13049/kfwa.2015.20.2.247
- 오정현(2005). 자녀의 학교 급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성취압력에 관한 연구: 양육신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노홍(2015).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16(1), 123-157. doi:10.16960/jhlr.16.1.201502.123
- 이동희(2004). 유아의 기질, 부모간 갈등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민하영(2006). 부모의 양육가치와 양육신념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5(4), 541-549.
- 이재경, 박명숙(2014).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발생 위험 요인으로써의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8), 235-259.
- 이정윤, 장미경(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 이주희, 이양희(2000). 아동 및 부모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4(2), 113-123.
- 이진화, 백경순(2018). 만 4세 유아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지능, 훈육방식이 자녀의 문제

-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교육: 이론과 실천**, 3(3), 135-155. doi:10.20926/ETPIYC.2018.3.3.7
- 이희선(1995).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신념. **아동학회지**, 16(1), 65-78.
- 장순상, 김영희(2017).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훈육 방식과 정서특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21(1), 49-62.
- 전은영(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 효능감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혜린, 이순형(2016). 유아의 기질이 도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훈육방식의 매개효과. **열린 부모교육연구**, 8(4), 71-87.
- 조은영(2009).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양심간의 관계: 유아의 두려운 기질의 중재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정호(2014).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태도가 유아의 다중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실천학회지**, 6(2), 30-54.
- 최경미, 김혜순(2010). 유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 신념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19(4), 261-275.
- 최선녀, 문영경(2016).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97, 125-156.
- 최영미, 이희영(2017). 가정의 소득수준과 부모의 훈육 방식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열린 부모교육연구**, 9(1), 1-22.
- 최은숙(2013). 부모의 양육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 행동. **유아교육·교육복지 연구**, 17(4), 132-151.
- 최은영, 이진화, 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5-22.
- 최향숙, 한세영(2011).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자아 개념이 양육 신념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1(2), 31-48.
- 표갑수(1993).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 아동복지학**, -(1), 156-177.
- 홍경선, 김영희(2005).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연구논총**, 9(1), 1-16.
- Afifi, T. O., Mota, N., Sareen, J., & MacMilan, H. L. (2017). The relationships between harsh physical punishment and child maltreatment in childhood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dulthood. *BMC Public Health*, 17(1), 1-10. doi:10.1186/s12889-017-4359-8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103. doi:10.1037/h0030372
- Calzada, E. J., & Eyberg, S. M. (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1(3), 354-363. doi:10.1207/s15374424jccp3103_07
- Curwin, R. L., & Mendler, A. N. (1988). *Discipline with dignity*.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Daddis, C., & Smetana, J. (2005).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families' expectations for adolescents' behavioural aut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5), 371-381. doi:10.1080/01650250500167053
- Dahlberg, G., Moss, P., & Pence, A. (2007).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Languages of evaluation*. British: Routledge. doi:10.4324/9780203966150
- Dreikurs, R. (1957). *Psychology in the classroom: A manual for teachers*. New York Harper & Row.
- Edwards, C. P., Gandni, L., & Giovaninni, D. (1996). The contrasting developmental timetables of parents and preschool teachers in two cultural communities. In

- S. Harkness & C. M. Super (Eds.), *Parent's cultural belief systems: Their origins, expressions, and consequences*, (pp. 270-28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dwards, C. P., Knoche, L., Aukrust, V., Kumru, A., & Kim, M. (2006). Parental ethno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Looking beyond independence and individualism in American belief systems. In Kim, U., Yang, K., & Hwang, K. (Eds.),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pp. 141-162). New York, NY, US: Springer Science.
- Erikson, E. H. (199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London: W.W. Norton & Company.
- Freud, S. (1949).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New York: W.W. Norton.
- Gardner, H. (1982). *Art, mind, and brain: A cognitive approach to creativity*. New York: Basic Books.
- Ginott, H. G. (1972). *Teacher and child: A book for parents and teachers*. New York: MacMilan.
- Glasser, W. (1985). Discipline has never been the problem and isn't the problem now. *Theory Into Practice*, 24(4), 241-246. doi:10.1080/00405848509543181
- Gorden, T. (1970). *P. E. 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New York: Peter H. Wyden.
- Harkness, S., & Super, C. M. (1996). *Parents' cultural belief systems: Their origins, expressions, and consequences*. Harkness, S., & Super, C. M. (Ed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ss, R. D., Kashiwagi, K., Azuma, H., Price, G. G., & Dickson, W. P. (1980). Maternal expectations for mastery of developmental task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5(1-4), 259-271. doi:10.1080/00207598008246996
-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89). Child-care quality, family structure, and maternal expectations: Relationship to preschool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3), 281-298. doi:10.1016/0193-3973(89)90031-2
- McCoy, M. L., & Keen, S. M. (2013). *Child abuse and neglect: 2nd edit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doi:10.4324/9780203120699
- Okagaki, L., & Sternberg, R. 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1), 36-56. doi:10.1111/j.1467-8624.1993.tb02894.x
- Olson, S. L., Tardif, T. Z., Miller, A., Felt, B., Grabell, A. S., Kessler, D., ... Karasawa, H. H. (2011). Inhibitory control and harsh discipline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young children: A comparative study of U. S., Chinese, and Japanese preschool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1163-1175. doi:10.1007/s10802-011-9531-5
- Raghavan, C. S., Harkness, S., & Super, C. M. (2010). Parental ethnotheories in the context of immigration: Asian Indian immigrant and Euro-American mothers and daughters in an American tow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4), 617-632. doi:10.1177/0022022110362629
- Ren, L., & Edwards, C. P. (2015). Pathways of influence: Chinese parents' expectations, parenting styles, and child social competenc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5(4), 614-630. doi:10.1080/

03004430.2014.944908

- Ren, L., Knoche, L. L., & Edwards, C. P. (2016). The Relation between Chinese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preacademic skill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7*(7), 875-895. doi:10.1080/10409289.2016.1151719
- Skinner, B. F. (1976). *About behaviorism*. New York: Random House.
- Smetana, J. G., Campione-Barr, N., & Daddis, C., (2004). Longitudinal development of family decision making: Defining healthy behavioral autonomy for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5*(5), 1418-1434. doi:10.1111/j.1467-8624.2004.00749.x
- Smetana, J. G., & Daddis, C. (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2), 563-580. doi:10.1111/1467-8624.00424
- Smetana, J. G., Daddis, C., & Susan, S. C. (2003). "Clean your room!":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adolescent-parent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6), 631-650. doi:10.1177/0743558403254781

The Influence of Mothers' Parenting Belief on The Types of Discipline Methods in Children

Misuk Kim

Professor, Dept. of Child and Youth Studie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So Hee Shin

Master Course, Dept. of Child and Youth Studie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others' parenting belief on the types of discipline methods

Methods: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219 mothers of 3~5 year old children who live in Seoul and Gyeonggido.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the SPSS 23.0 program.

Results: Firstly, the highest parenting belief of young children's mothers was found to be problem-solving ability. And they used mostly the discipline of logical explanation. Secondl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ing beliefs of problem-solving ability and creativity ability and the discipline of logical explanations. Thirdly, the parenting beliefs of problem-solving ability and creative ability were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on logical explanations whereas it negatively influenced on the discipline of neglect and the forced punishment.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parenting belief affect on the types of discipline method and the mothers need education for the parenting belief of problem-solving ability and creative ability.

Keywords: mother, parenting belief, types of discipline methods

Received January 30, 2019

Revision received February 24, 2019

Accepted March 12, 2019